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9. 7 통권 제55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7
1999
제55호

편집자의 글

불안해진 남북 관계의 조망2

포커스

서해 교전 이후의 한반도 • 이원섭3

특 집

남북한 육로수송체계 구축 방안
육로 수송의 필요성과 문제점 • 안병민10
육로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김경석17
구 동서독의 육로 수송 협력 사례와 시사점 • 김영윤24

경협정보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V): 금융 및 외화 관리 • 황동언32

논 단

서해 교전 사건과 북미 및 남북 관계 전망 • 김성한42
최근의 북중 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 • 안인해53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수준과 남북 협력 방안 • 박찬모64

북한경제

북한의 무역 조직 개편과 시사점 • 권경복79

인물초점

독일 통일의 주역들(Ⅲ): 칼 한(Carl Hahn) 폴크스바겐社 사장 • 박상봉88

독자기고

대북 포용 정책의 중간 평가와 추진력 • 장노순93

총 권 제55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7월 10일
발행인 김중용
편집인 정순원
편집위원 김정균 유병규
김선덕 김희성
박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홍순직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불안해진 남북 관계의 조망

지난 6월의 남북 관계는 5월과 달리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정치·안보적 문제는 미국과, 민간 차원의 경제적 문제는 남한과 해결한다는 북한식 정경 분리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보여온 일관성있는 대북 포용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기 위해 “서해 교전 이후의 한반도”를 포커스로 다루었다. 여기서는 최근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가 국내 보수 여론을 부추겨 포용 정책을 흔들거나, 한미간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 좌절되어 남북한간 긴장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특집에서는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경협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차원에서 “남북한 육로수송체계 구축 방안”을 분석하였다. 3 명의 전문가들이 육로수송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과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논단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발발한 배경과 주변국 및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전망해보았다. 여기서는 “서해 교전 사건과 북미 및 남북 관계 전망”과 “최근의 북중 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김성환 교수는 향후 북한이 한·미·일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 명백한 입장 표명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 전략과 자신의 양보 부분은 최대한 잘게 썰어서 하나씩 협상해나가는 맥시민(maximin)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美 의회와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 사업으로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 부문에 있어서, 포항공대의 박찬모 교수는 남북한간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 격차와 협력 방안에 대해 엔지니어 입장에서 소상히 살펴보았다.

한편, 북한경제에서는 최근에 단행한 대외 무역 조직 개편 내용과 여기서 들어난 실세들, 그리고 이 새 진용의 관료들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독자기고에서는 “대북 포용 정책의 중간 평가와 추진력”이란 제목으로 최근 다소 위기를 맞고 있는 대북 포용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가속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번 호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다시 냉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 가족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당국자간 대화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 민간 차원의 경협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 남북한간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교류의 장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상호주의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시사를 얻었을 때, 남북한 교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1999년 7월
편집자